

곡성군수 '민주 2명 vs 무소속 4명' 최후 승자는

1~7회 지선서 무소속 곡성군수 3차례 현 군수 3선 포기...무소속 대거 출마 민주 2명·무소속 4명 다자 구도 형성

6·1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수 선거는 유권기 곡성군수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과 무소속 다수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곡성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군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남 시·군 중 한 곳으로, 무소속 열풍 속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성립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 1~7회 지방선거 곡성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3차례다. 조항래 군수(1회·4회)와 허남석 군수(5회)가 무소속 후보로 뛰어들어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상철(61·민주당) 전남도의원, 이재호(59·민주당) 전 곡성군의원, 조상래(64·무소속) 전 전남도의원, 강대광(59·무소속) 전 곡성군의원, 박정하(66·무소속) 곡성신문 대표, 양병식(61·무소속) 전 곡성군 복지실장 등 6명이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이상철 전남도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군수 출마의 뜻을 품고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구·환경·경제·관광·복지 등 여러 분야 현안을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후보로 바닥 민심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곡성군의회 5·6대 의원을 지내고 군의장을 역임하며 의정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최근 곡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재호 전 의원은 18년 공직생활과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전 의원은 군수에 당선되면 급의 절반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륙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 석곡권역 농산물 자원 활용 상생발전, 기차마을 수목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은 선거 경험이 풍부하고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군민과의 잦은 소통으로 인지도 부분에서 어느 후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조 전 의원은 곡성군의회 6대 군의원 출신이며, 과거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도의원 재선을 두 차례나 성공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장, 법무부범죄예방위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역량을 키웠다. 곡성로터리클럽 회장, 곡성청년회의소 회장, 재향군인회 곡성군지회 이사, 곡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지구청년회의소 부회장 등을 지내 지역 현안에도 밝은 편이다.

강대광 전 곡성군의회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입지자다. 곡성군의회에서 5대부터 7대까지 연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읽는다는 평가다. 육과를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곡성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곡성군수에 출마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곡성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는 지난 22년간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두루 능통한 인물이다. 문화재학 박사로서 곡성 지역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며 곡성 문화유산에 관한 독보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30여 년간 향토사 연구 및 향우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양병식 전 곡성군 복지실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양 전 실장은 지난 39년간 공직생활을 이어가면서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8년 퇴직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경험이 있는 양 전 실장은 무한한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수, 민주당 내 경선이 곧 본선 승리로 직결

민주당 복당 유두석 "지역발전 마무리 짓겠다" 지역 정치권 잔뼈 굵은 3선 경력 김한중 도전장 인구 4만 명대 소도시...바닥 조직력 후보 유리

6·1 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3선' 신화의 주인공으로 2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유두석 장성군수에 맞서는 복수의 도의원과 부군수를 지낸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유 군수에 맞서는 경쟁한 출마예정자들은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노원 전 청와대 시민참여 비서관실 행정관,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자.

거센 도전에 직면한 유 군수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민선 4기 중도 하차 경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4선 도전'이다. 그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 무소속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했다. 그러나 2014년, 2018년 연속해서 민선 6·7기 장성군수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3선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유 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긴 꽃 강을 콘셉트로 한 황룡강 관광자원화를 비롯해 장성호 수변길 조성, KTX 장성역 재정부 설비 등을 인정받아 '일 잘하는 군수'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누려왔다. 이번 3선 도전도 미래 장성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굵적굵직한 현안사업 마무리가 출마의 변이다.

하지만 대선 군수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번에는 비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양자 구도로 선거전이 펼쳐졌지만 유 군수가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에 복당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당 경선이 곧 본선 승리로 직결될' 전망이다.

특히 장성은 전체 인구가 4만 4000여명에 불과한 소도시라는 점에서 그간 바닥 조직력을 키우고 유지해 온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저 3선 경력의 김한중 도의회의장은 제7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9대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다. 지난 2020년에는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한중 의장은 전남의 관문인 장성군의 위상에 걸맞은 도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성의 정체성과 가치가 담긴 문화와 음식을 특화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관광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족과 학생들을 위한 휴양과 식물원 등 체험관광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2016년 장성군 부군수를 지낸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력과 다양한 경험,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운다. 박 전 행정관은 제8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나주시의회 전문위원,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담당,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지방세 정책과 팀장, 사회혁신추진단 과장,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투자유치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기초(나주시·장성군), 광역(전남도), 중앙부처(행안부), 청와대까지 섭렵한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활력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핵심 가치로 '기업이 먼저 찾는 일자리 중심 도시', '농민이 부자 되는 스마트 농업 도시', '연중 지속 가능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행복·환경도시', '군민 누구나 맞춤형 복지·보건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함께하는 생활 체육도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행정, 주민 참여·소통도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사 출신인 유성수 전남도의원(도의회 제11대 교육위원장)도 군수 출마를 위한 바닥 다지기에 분주하다. 조선인 유 위원장은 장성군 약사회 분회장, 초·중학교 운영위원장,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민들 사이를 깊숙이 파고드는 활동을 펼쳐왔다. 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주민들이 깨어나 힘을 합치는 주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민자치를 만드는데 열정을 바치겠다는 각오이다.

'장성 관내 모든 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 '장성만의 먹거리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필수 업종 지정·지원', '하이테크고등학교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의 미래산업이 필요로 하는 대표 학교로 육성', '청운 지하차도 왕복 2차선 단순화', '장성호 주변 리조트 유치로 통한 관광단지 확대 조성', '황룡강 복합 테마정원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